

전매광장

이정서

조선이공대 교수



우리 사회에 공정성과 책임의식이 강조되면서, 현대사회를 밝고 건강하게 만드는 기부 천사에 관한 뉴스를 자주 접(接)한다. 중산층은 점점 사라지고 부와 가난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알게 모르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아름다운 삶을 실천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 외국 저명인사로는 빌 게이츠, 워런 버핏 등의 사회 환원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기부문화를 한 단계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층의 참여가 우선되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유산으로 자선 재단을 설립하는 게 유행이라고 한다. 후손들이 유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재단 관리인으로서 선대의 자선 유지를 실천하는 정신은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개인뿐 아니라 기업들 역시 수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에 환원하려는 풍토가 점차 뿌리내리고 있다.

사회지도층·고소득층 참여 절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프랑스 작가 오스레 드 발자크가 1836년 소설 ‘골짜기의 백합’에서 처음 사용했다.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로 초기 로마 시대에 왕과 귀족들이 전쟁에 참여하고 공공시설 기증, 사회 환원 등의 사회적 의무를 실천하는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에서 비롯됐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개념은 단순히 돈이

아름다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 실천

나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책임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전파되고 있다. 특정 계층이나 그룹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종의 사회적 규범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책임은 단순히 경제적 기여나 자선 활동에 그치지 않고, 도덕적, 윤리적 행동과 결합되어야 한다.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은 이익을 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노력으로 자선 기부나 사회봉사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지난해 영국 헨리앤드파트너스가 ‘가장 부유한 50대 도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10억 있는 사람만 백만 명이 넘었고, 서울에 사는 백만장자 수는 6만6천 명으로 나타났다.

아름다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 실천으로 자신의 재산을 미련 없이 내놓고, 부(富)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가치를 아는 부자로서 존경받는 일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핵심요소는 첫째, 도덕적 책임으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둘째, 사회적 의무로 공익을 위한 봉사, 기부, 윤리적 행동이 요구된다. 셋째, 솔선수범으로 법과 규범을 지키는 것을 넘어, 모범적인 행동을 필요로 한다.

1932년 전남 해남에서 출생한 법정 스님은 입적하기까지 법랍 55세, 이승에서 78년 동안 집착하지 않는 삶으로 불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법정 스님이 입적한 후 남기는 글에는 말로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외치는 사회에 충격을 던졌고 소유와 집착으로 물들어가는 불가와 세상에 경종을 울렸다.

우리 사회에서 ‘작은 실천이 모여면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늘 강조하는 김수환 박사(광주 상무 수처와 대표원장)는 평소 지역사회 봉사 및 후원 활동을 직접 실천하여 ‘아름다운

기부’를 자신의 참된 ‘가치’로 삼고 있다.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1억 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을 포함한 고액기부자 모임 8개에 모두 가입하는 등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나눔 여정에 앞장서는 선봉자적 역할로 지역사회에 큰 울림을 주는 진정한 사회복지 실천가이다.

선한 영향력이 오래간다

배려와 나눔 정신은 단순히 부유층이나 권력층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신이 속한 위치에서 실천할 수 있다. 기부문화의 확산은 빈부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넉넉함 속에서 나눔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나누는 훈훈함, 그리고 작은 것도 소중한 아름다운 실천이다. 소외됨이 없이 힘들고 지친 삶이 쉬어갈 수 있으며,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배려와 나눔’의 실천은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진정한 공동체의 삶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다큐멘터리를 통해 회자 되는 진주의 ‘어른 김장하’ 선생의 어록 중 “기부는 부자가 아니라 인간이 해야 할 도리다.”, “돈은 모아두면 똥이 되지만, 흩어버리면 거름이 된다.”는 소중한 가르침은 공동체의 연대감과 책임감을 일깨워주면서 복지사회에 커다란 울림을 주고 있다.

기부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의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부자와 기업들이 기부에 앞장서는 모습이 더욱 절실하다. 특히 정치인, 기업가, 연예인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지도층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으로 먼저 한 걸음 더 낮은 자세로 겸손히 섬길 때 그 선한 영향력은 오래 가고 영원히 빛날 것이다.

두려운 설렘

속에 그려진 일상, 사랑하는 이와와 모습, 신을 향한 경외심,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완전한 영원을 바랬던 것 같다.

계속 이어지는 여행에서 거대한 신전 특히 우람한 신전 기둥들의 숲과 아부심벨 신전의 어마어마한 라메세스 2세 상, 왕가의 계곡 무덤들, 룩소르 신전과 석상들, 마지막 날 본 기자의 대스핑크스, 그 앞에서 한없이 왜소한 나로 대 피라미드 역시 이 일들을 이룩해 낸 신이 아닌 인간의 능력 곧 그들 삶의 흔적 앞에 신성한 충격과 감격으로 전율했다. 하지만 죽음을 준비하는데 삶의 대부분을 바쳤다는 아이러니, 그것은 신을 숭배하기가보다는 인간의 유한함을 뛰어넘어 신에 이르고 싶었고, 시간의 한계도 정복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데 그런 거대함과 대단함이 오히려 오늘 우리에게는 인간의 유한함을 가장 생생하고 분명하게 일깨워 주고 있다.

투탕카멘은 소년 왕이란 이름처럼 18세로 어려서 죽어 자손도 없고 이렇다 할 업적도 남기지 못한 탓에 다른 파라오에 비해 존재감이 있을 수 없는 왕이었다. 하지만 가장 완벽하게 발견된 무덤으로 인해 어는 파라오보다 더 유명하게 되었으며 특히 그의 미라가 보관된 박물관까지 화제가 된 것 같다. 21년이라는 오랜 기간의 공사를 거쳐 완공된 세계에서 가장 큰 이 고고학 박물관은 입구부터 피라미드 모양으로 웅장함을 자랑하는데 내부로 들어가니 거대한 파라오 조각상과 관련 유물과 동상들이 두려움을 자아낼 만큼 위용을 자랑하며 우릴 맞이했다. 이 박물관은 루브르박물관의 두 배 크기로 이집트

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역사적 자료를 보유한 나라의 위상에 맞게 만들어버렸다.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와 미라를 보면서 삶과 죽음 사이에서 고대 이집트인들은 어떤 믿음으로 다음 세계를 믿고 기대했는지도 알게 되었다. 결국 그들에게 삶과 죽음은 다른 세계가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죽음이라 보았던 것임을 알 수 있었다.

3,400년 전 사람과 만나는 감격 그리고 세계의 관이 중첩 구조로 제작된 황금의 관, 그 가장 안쪽 관은 110kg의 순금 관에 유리, 터키옥, 홍보석으로 삼각 처리되었었다.

나는 그것들 앞에서 첫날부터 한없이 작아져 버린 채 계속해서 이집트 속으로 들어가며 램세스 2세의 조각상, 아스완 하이댐과 미완성 오벨리스크, 콥솔보 신전의 악어 미라와 에드푸 신전의 호루스 상, 왕가의 계곡에서 본 파라오들의 무덤들을 만났다. 뎀논의 거상과 핫셉수트 여왕의 장제전, 모하메드 알리 모스크의 첨탑, 울드 카이로의 공중교회와 칼 할리리 재래시장 등에서는 내 삶 속에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인간의 위대함을 상기시켰다.

특히 마지막 날 마주한 146m의 거대한 삼각형 피라미드는 둘 하나 무게만도 2.5톤이라는 데 4500년 전에 그 무거운 석재를 운반하고 다듬던 석공들의 손과 땀은 신에 가까운 특별한 존재가 아녘을까 싶었다. 5천 년 역사의 우리나라지만 이집트의 그 대단함엔 말을 잃었다. 그 모든 여정은 영원으로 향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그들 역사 흔적 앞에서 우리 또한 어떤 것을 얼마큼 남길 수 있을까 새로운 두려움이 설렘으로 다가왔다.

1989년 6월 29일 창간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박철홍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김경남	주필 이종주
jndn.com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정치부	(062) 720-1060	문화체육부	(062) 720-1071
경제부	(062) 720-1067	사진부	(062) 720-1040
사회부	(062) 720-1050	편집부	(062) 720-1073
사회2부	(062) 720-1043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기사제보 jndnnews@naver.com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전변자로 398 (사동)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설

시름 깊은 골목 상권 누가 살려야 하나

지역 골목 상권이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도무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경기 불황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이 지속되면서 상인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과거 지역 대표 상권이었던 전남대학교 인근과 구시청 사거리 등은 손님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됐다. 다른 지역 상권 역시 고금리 경기침체, 물가 상승이라는 ‘삼중고’에 내몰린 채 폐업 위기를 맞고 있을 지경이다.

현장 상인들의 불lenme소리뿐만 아니라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지난해 4분기 광주지역 중대형상가 공실률은 16.0%로 전분기보다 0.6% 증가했다. 전남대 인근 공실률은 무려 37.7%에 달했다. 상가 3곳 중 한 곳 이상이 비었다는 뜻이다. 금남로와 충장로도 24.4%로 네 곳 중 한 곳은 빈 가게였다. 다른 곳도 큰 차이가 없었다. 월산동 지구 23.9%, 어룡동 19.2%, 금호지구 18.6%, 상무지구 15.8%, 용봉동 13.4% 등이었다. 더구나 전남대와 월산동, 봉선동, 우산동 등은 공실률이 늘었다.

옛 광주적십자병원 개방 환영한다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5·18 사적 제11호인 옛 적십자병원을 개방한다고 한다. 광주시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비록 5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지난 2014년 폐쇄 이후 11년 만의 개방은 의미가 크다. 옛 적십자병원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부상자 치료와 자발적 헌혈이 이어졌던 역사적 장소다. 오월 광주정신의 상징 중 하나다. 1996년부터 서남대학교병원으로 운영되다가 2014년 폐쇄됐다.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배경이기도 한 옛 적십자병원은 광주시가 지난 2020년 7월 매입해 관련 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통해 보존·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다. 이번 일시 개방은 2025년 광주방문의 해를 맞아 5·18 사적지라는 역사성을 시민과 방문객에게 널리 알려 역사문화관광 콘텐츠로 확장하기 위해서다. 특히 노벨상 수상 작가인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 배경지 중 하나라는 사실을 활용해 광주 관광공사의 특화상품인 ‘소년의 길’과 5·18기념재단의 ‘오월길’ 해설 프로그램을 연계할 계획이다.

개방구간은 관람객의 안전과 관람 효율

중대형상가 공실률은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공실률이 높을수록 경기는 당연히 좋지 않다. 게다가 올 1분기 중대형상가의 투자 수익률도 0.64%로 전국 평균 0.91%를 한참 밑돌았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골목 상권 회복이 회복할 것이란 기대가 무색할 정도로 내수 경기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매출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형국이다.

오선신 광주 북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지역 상권이 다시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전과 비슷한 상황이다. 광주역에서 북동 유동으로 이어지는 상권은 손님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침체 됐다”고 말했다. 정일성 총장으로 1~3가 상인회장은 “탄핵 이후에도 골목 상권은 여전히 찬바람만 불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다가오는 황금연휴 기간에 시민들이 외국이나 다른 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보여 총장로 상인들의 걱정이 더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골목 상권이 죽으면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 각 지자체는 지역 전체가 경제공동체라는 인식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 지자체장은 정치보다 민생이 먼저임을 명심해야 한다.

을 고려해 전면 주차장, 응급실, 1층 복도, 중앙현관, 뒤탈방 등으로 정했다. 관람 기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오후 1시 30분 이후에는 5·18기념재단의 ‘오월 해설사’가 상주해 관람객들에게 무료 해설을 해준다.

이와 함께 개방 기념 전시회도 마련한다. 전시는 ‘멈춘 공간 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개방 기간 내내 열린다. 5·18 당시 헌혈 장면과 부상자 치료 모습을 담은 사진, 병원의 역사, 관계자 증언이 담긴 영상자료 등을 선보인다. 80년 오월 긴박했던 순간에도 나눔과 희생, 공동체의 삶을 놓지 않았던 감동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또 역사적 공간의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 보는 체험형 콘텐츠도 만날 수 있다.

5·18 사적지인 옛 적십자병원 개방은 민주화운동을 시민과 공유하고 그 의미를 되새김으로써 5·18의 역사적 의미를 현재와 미래로 이끄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이번 일시 개방 이후에도 관련 단체와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건물과 부지 전체에 대해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을 찾기 바란다.

사진 속 세상



풀숲 헤치는 삶…“꼭 잡는다 요놈”

강원 강릉시 경포전에서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삶이 한낮임에도 풀숲을 헤치고 다니며 먹잇감을 노리고 있다. 삶은 우리나라 생태계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로 주로 야행성 동물이다.

연합뉴스